

보고 먹고 즐기는 행복한 완도여행

내달 1~9일 해변공원 일대서 장보고 수산물 축제

다양한 볼거리·먹을거리·체험거리 66개 행사 선봬

‘2015 완도 장보고 수산물 축제’가 5월 1일부터 9일까지 9일간 ‘보고, 먹고, 체험하는 행복한 완도여행’을 주제로 해변공원과 장보고 유적지 일원에서 열린다. 군은 18번째 이어온 ‘장보고 축제’를 올해부터 ‘장보고 수산물 축제’로 변경했다. 해상무역왕 장보고대사 진취적 기상과 정정바다 완도수산물을 축제로 승화시켜 다양한 볼거리, 먹을거리, 체험거리를 선

보이기 위해서다.

이번 축제는 ▲공식행사 5종 ▲기획행사 8종 ▲공연 및 경연행사 21종 ▲연계행사 4종 ▲참여행사 3종 ▲판매행사 2종 ▲체험행사 18종 등 총 7개 부문 66개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개막 첫날인 5월 1일에는 ‘대한민국 정정바다수도 완도 선포식’이 열린다. 8일 어바이날에는 ‘미역데이’ 선포식을 갖는다.

또한 ‘장보고 신위 해상퍼레이드’를 비롯해 ‘장보고 고유제’, 밤바다 멀티미디어 불꽃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예비 엄마를 위한 완도 청정 미역 증정을 비롯해 가족이 함께 만드는 전복라면, 전곡 해조류 음식 개발 경연대회, 수산물 감쪽경매도 축제기간 내내 진행된다. 판매행사는 다시마와 전복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장정완도 해조류 판매관’이 운영된다.

체험행사로는 5월 2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군외면 달도 농어촌 테마공원 해변에서 맨손 고기잡이가 열린다. 달도 해변은 게르마늄과 미네랄 성분이

풍부한 갯벌로 경사가 완만해 송어, 농어, 광어 등 자연산 활어를 맨손으로 잡을 수 있다. 바지락 캐기, 게 잡기 등 가족단위 체험행사를 즐길 수 있는 곳이다. 맨손 고기잡이에 참가하면 장갑과 물고기를 담아갈 망태기를 현장에서 무료로 제공한다. 장화와 호미는 준비하거나 현장에서 살 수 있다. 맨손으로 잡은 물고기는 즉석에서 시식할 수 있도록 마을 주민들이 회를 떠준다.

신우철 군수는 “새롭게 시작하는 수산물 축제에 오면 맛있게 먹고, 신나게 즐길 수 있는 행복한 여행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완도=정은조기자·서부취재본부장



진도군 ‘군민 행복생활지원단’ 공직자 태풍 침수주택 전기·통신시설 개선 봉사

진도군 군민 행복생활지원단이 ‘안전’과 ‘행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고 있다.

진도군 군민 행복생활지원단(이하 지원단)은 최근 2012년 태풍 ‘볼라벤’ 피해를 입은 의신면 창포리 마을을 찾아 자원봉사 활동을 펼쳤다.

지원단은 한전과 KT의 협조를 얻어 태풍 ‘볼라벤’ 내습시 큰 수해를 입었던 창포마을 침수주택을 대상으로 전기 및 통신시설 점검을 실시했다. <사진>

또한 독거노인과 취약계층 주택을 방문해 청소와 설거지를 하고 하천과 배수로 등의 각종 시설도 점검했다. 박창원 이장은 “군청 공무원들의 봉

사활동으로 2012년 수마로 인한 마음의 상처가 어느새 아문 것 같다”고 말했다.

진도군 관계자는 “앞으로 복지 사각지대 지원뿐만 아니라 취약가정에 대한 안전점검을 더욱 강화해 군민의 ‘안전’과 ‘행복’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더욱 군민 행복생활지원단의 활동을 넓혀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진도군은 공직자 4~5명으로 한 팀을 이루는 ‘군민 행복생활지원단’을 지난 2013년 4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원단은 매주 2회(월·목요일)에 걸쳐 기초생활수급자와 독거노인 등을 방문해 집안 환경정비, 설거지, 의료도움 등을 제공하

고 있다. /진도=박희영기자 hypark@



해남의 한 농민이 모내기를 마친 논에 새끼 우렁이를 입식하고 있다. 새끼우렁이 농법은 잡초방제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남군 제공>

해남군 ‘우렁이 농법’ 8400ha로 늘린다

올 10억원 들여 100t 공급
무농약 친환경 농업 박차

해남군이 새끼우렁이 농법을 활용한 저비용 유기농 실천과 안전한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 박차를 가한다.

해남군은 올해 총사업비 10억5000여 만원을 투입해 8379ha의 논에 새끼우렁이 100t을 공급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전체 모내기 면적의 37%에 해당하며, 지난해 새끼우렁이 농법 실천담 7456ha보다 12%가 늘어난 수치다.

벼농사 새끼우렁이 농법은 전담도 농업기술원에서 잡초방제에 대한 시험검증을 통해 피, 물달개비 등 제초제에 저

항성을 가진 ‘슈퍼 잡초’까지 99% 이상 방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씨레질 직후 10a당 1.2kg(1200 마리) 정도를 논에 넣어주면 제초효과가 탁월해 노동력 절감은 물론 제초비용을 40~50% 이상 절감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군은 내년 저농약 인증이 전면 폐지됨에 따른 무농약 인증 이상의 쌀을 생산할 수 있도록 새끼우렁이 농법을 지난 2012년부터 도입해 왔다. 매년 8000여 ha 이상씩 새끼우렁이 농법을 통해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고 무농약 쌀을 지속적으로 생산해온 만큼 유기인증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군은 올해 초 새해 영농교육을 통해 새끼우렁이 농법에 대한 교육을 하는 한편 이달 초 우렁이 투입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한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실천농가 교육을 진행했다.

새끼우렁이 투입의 최적시기는 5월 하순에서 6월 상순이지만 현재 조생종 벼 등 조기 이앙(모내기)담을 위해 이달 말부터 공급을 시작하고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새끼우렁이 농법은 벼농사 잡초제거 효과에 가장 뛰어난 농법인 동시에 생산성과 노동력을 절감시켜 1석3조의 효과가 있다”며 “앞으로도 새끼우렁이 농법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친환경농업 군으로서의 위상을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기자 dia@

완도군-한일고속 지역발전 업무협약

관광·경제 활성화 공동 노력

완도군과 지역연고 기업인 (주)한일고속이 상생발전을 위해 손을 잡았다.

완도군과 (주)한일고속(대표 최석정)은 27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상생발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이날 군과 한일고속은 육·해로 접점성 개선 및 관광객 유치전략 적극 추진, 글로벌 수준의 프리미엄 여행서비스를 제공해 지역과 연고 기업이 상생발전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주)한일고속은 이달 1일부터 완도 군민들이 완도~제주간 여객선을 이용할 경우 한일 카워리오는 20%, 블루나래 페속선은 10%의 운임 할인혜택을 주고 있다.

국내 유일의 육·해상 여객 및 화물 수송 서비스 업체인 (주)한일고속은 1979년 4월 완도~제주간 항로를 개설하고 여객선을 취항하면서 본격적인 뱃길을 열었다.

(주)한일고속 최석정 대표이사는 “한일고속과 완도군이 서로 협력해 공동발전을 위해 노력한다면 앞으로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기자·서부취재본부장

해남군 절임배추 명품화 팔 걷었다

제조시설 현대화 장비·QR마크 박스 제작 지원

해남군이 연간 500억원이 넘는 판매고를 올리는 절임배추 명품화를 위해 발 벗고 나선다.

해남군은 “해남 절임배추의 명성을 높이고 소비자 신뢰확보를 위해 우수 처리시설 등 절임배추 제조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노동 절감용 장비를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군은 2억85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모두 5개소에 대한 제조시설 건축물을 지원해 위생적인 생산기반을 구축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 절임배추 제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절임배추 노동절감용 장비로는 절단기와 세척기, 염수탱크 등이 지원된다. 개소당 1000만원 이내로 최대 60개소에 대해 장비를 지원해 배추 생산능력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소비자들이 해남군에서 생산된 배추로 만든 절임배추임을 인지할 수 있

도록 QR마크를 도입한 절임배추 박스를 제작해 지원할 계획이다. 총 6억원의 사업비로 54만6000매의 박스가 제작된다.

이와 함께 군은 생산능력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지난 21일부터 30일까지 읍·면 절임배추 생산자와 간담회를 잇따라 개최하고 있다.

이런 간담회에서 생산농가들은 절임배추 적정가격 판매에 대해 논의하면서 위생교육, 최적의 절임배추 생산 노하우 등을 공유하고 QR마크 도입 박스 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해남군 관계자는 “절임배추가 해남의 대표적인 농·특산물로 자리 잡은 만큼 고품질의 절임배추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해남 관내 가을배추 재배면적 1648ha 중 33% 정도인 540ha에서 3만2900t의 절임배추가 생산돼 508억 4600만원의 판매고를 기록했다. /해남=박희석기자 dia@

상무 Biz Center

즉시입주가 가능 임대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지원합니다.
쾌적한 업무환경과 여유로운 주차,
상무지구에서 가장 저렴한 임대, 관리비,
정직한 공용면적 적용으로
입주업체와 함께 동반성장 하겠습니다.

건물구분	관장업종	면적
1층	편의점, 공인중개사사무실	잔여 128㎡
2층	사무실	잔여 1201㎡
3층	사무실	1629㎡
4층	사무실	1267㎡
5층	사무실	1400㎡
6층	사무실	임대완료
7층	사무실	1400㎡
8층	사무실	1383㎡
9층	사무실	1367㎡
10층	사무실	1342㎡
11층	사무실	1307㎡
12층	사무실	임대완료
13층	사무실	임대완료
14층	사무실	잔여 111㎡

* 임대료 3.3㎡당 25,000원(4층 27,000원) 관리비 3.3㎡당 9,000원

상무비즈센터 (구 남영비즈타워)

광주광역시 서구 시민로 103 (치평동 1210-4)

임대관리 010-7570-7525
관리실 : 062)381-5551 FAX : 062)384-5551

해숫음 부동산

수완지구 현진에버빌 아파트 임대

▶ 광산구 수완동 933 해솔 현진에버빌
1단지 1층 / 53평
정남향 / 초중고 인접 / 로얄동 / 즉시입주가

◆ 전세 4억
(월세 보2억/월100만원)

공인중개사사무소 674 - 2006